

창조적 약동을 기대하는 하루하루

>>>>> 문 명 숙 / 하비에르 국제학교 교감

제가 학교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라면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 매일

'서로 새로 되어감'의 상황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게 있는 창조적 약동을 식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또한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파악하고 그 일을 돕니다.” - 프랑스의 교육자 마들렌 다니엘루 -

저는 2002년 3월에 개교한 하비에르 국제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재학생들은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한국의 지리나 여러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해외조기 유학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학교 학생들처럼 온 가족이 함께 외국에서 생활해도 학교생활 중에 겪는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아이 혼자서 가족과 헤어져서 유학을 떠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이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의 학교생활이 힘들었던 만큼 귀국한 후에 학생들은 타인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되고 애정결핍과 정서적인 위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은 전에 받았던 충격과 갈등을 일상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그들의 어린 시절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특혜만 누린 것은 분명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어린 나이에 혼자서 외국학교를

찾아다니며 부모 없이 입학 수속을 밟아가며 성공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모님은 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시고 다른 어른들이 보기에 그 학생은 무척 대견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절박한 상황을 혼자 겪어야 했던 그 체험이 훗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몹시 불균형한 감성상태를 보이고 평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전의식이 항상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매순간 투쟁적인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벤트 중심의 삶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일상적인 삶에서 감성을 적절히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강한 아이에게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우리가 탄 배가 매일 폭풍우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교사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담당 선생님께서 벌칙을 주었는데,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태도로 통 지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교사가 너무나 실망하여 자기가 내린 벌칙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 자신의 권위가 떨어졌으며 학생이 교사에게 도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더 가중된 벌칙을 고안해 낼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사가 지시한 대로 정한 시간보다 일찍 와서 보통때처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기가 지시한 내용들이 그 날, 그 시간에 그대로 실행되기를 바라지만 학생들은 다른 논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 후에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날, 그 시간, 그 방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선생의 말을 지키는 척하는 학생이 아니라 벌칙의 신의에 대한 학생의 진솔한 태도가 그 후에 실천되고 있다면 비록 시간적인 간격을 있었지만 교사의 권위는 학생의 의식속에 녹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속에서 살아온 우리 학생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고 방식이 머리 속에 살아있으므로 획일적인 잣대로는 그들의 속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교사나 어른들의 반응과 조치에 대해 자기 논리대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시간과 교사의 시간 사이에는 존중받아야 할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진실을 발견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라면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 매일 '서로 새로 되어감'의 상황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청소년을 보면서 무한한 긍정적 잠재력을 기대하며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저희 학교의 정원에는 작은 나무들이 하나씩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창조적 약동'이 꽃을 피워 '지구촌 사람들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비밀의 화원을 각자 제방식대로 가꾸고 있답니다. **김기현**